

현대차·기아, 美 시장 종횡무진... 누적판매 3000만대 목전

지난달 기준 2930만3995대 기록
아반떼 > 쏘나타 > 쏘타페 > 투싼 順
현지생산 등 시장 변화 적극 대응

현대차·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며 올해 누적 판매 3000만대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1986년 미국 시장 진출 이후 39년 만이다.

24일 현대차·기아에 따르면 1986년부터 지난 2월까지 현대차·기아의 미국 시장 누적 판매는 현대차 1711만 6065대, 기아 1218만 7930대로 총 2930만 3995대를 기록했다. 올해 70만 대만 더 팔면 3000만대 고지를 넘어서는 셈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현대차 91만 1805대, 기아 79만 6488대를 판매하며 미국 시장에서 사상 최대 판매를 달성했다. 이로써 현대차·기아는 미국 시장에서 제너럴모터스(GM), 도요타, 포드에 이어 2년 연속 4위 자리를 수성했다.

현대차·기아의 미국 시장 진출은 1986년 1월 현대차가 울산공장에서 생



현대차 아반떼.



기아 쏨렌토.

산한 '엑셀'을 미국에 수출하면서 시작됐다. 2005년 현대차는 미국 남부 앨라배마주에 첫 현지 생산 공장을 완공했다. 기아는 1992년 기아 미국 판매법인을 설립하고 미국에서 1994년 2월 '세피아', 11월 '스포티지' 판매를 시작했다. 이후 조지아주 공장을 2010년 완공했다.

현대차·기아는 1990년 누적 판매 100만대를 돌파한 이후 2004년 500만대를 넘어섰다. 그로부터 7년 뒤인 2011년에는 1000만대를 기록했으며 이후 매년 100만대 판매를 넘어서며 2018년에는

2000만대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누적 판매 1000만대 돌파까지 25년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3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에 2000만 대 판매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것이다.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은 현대차의 경우 '아반떼(현지명 엘란트라)'다. 아반떼는 1991년 미국 판매를 시작했으며 지난 2월까지 388만대 판매됐다. 그다음으로는 쏘나타(342만대)와 쏘타페(238만대), 투싼(187만대) 순으로 집계됐다. 기아는 쏨렌토가 2002년 미국 판매를 시작한 이후 지난해까지

183만대 판매됐다. 그다음으로는 스포티지(166만대)와 쏘울(152만대), K5(150만대) 순으로 집계됐다.

현대차·기아는 미국 시장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제네시스, 친환경차 등으로 판매 라인업을 다양화했다. 이를 통해 현대차·기아의 SUV 판매량은 지난해 128만4066대로 전체 판매량의 75% 이상을 차지하며 판매 상승을 이끌었다. 또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는 2016년 미국 시장에 진출한 첫해 6948대를 판매했으며 지난해 7만5003대로 꾸준한 성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품질 면에서도 현대차·기아는 미국 시장에서 호평을 얻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2020년 텔루라이드, 2021년 아반떼, 2023년 EV6, 2024년 EV9 등 5년간 4개 차종이 '북미 올해의 차'로 선정됐다. 또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11월 미국 시장조사업체 제이디파워(J.D.Power)가 발표한 '2025 잔존가치상'에서 코나 일렉트릭이 전동화 SUV 부문, 텔루라이드가 3열 중형 SUV 부문에서 수상했다.

지난해 10월 양산을 시작한 조지아주의 친환경차 신공장 '현대차그룹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정상 가동도 초읽기에 들어가며 현지 공략에 힘을 보태고 있다. 현대차는 HMGMA에서 전기차 이외에도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을 통해 급변하는 미국 시장에 대응할 방침이다.

현대차·기아는 이러한 판매 호조에 높은 상품성과 유연한 생산체제로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강화해 올해 미국 시장에서 누적 판매 3000만 대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산업계 정기 주주총회

신학철 사외이사 연임... “전지재료 등 3대 新성장동력 집중”

(LG화학 부회장)



성과 중심 R&D·현금흐름 개선 의지
“AI·디지털 전환 활동 가속화할 것”

“중국, 중동의 대규모 증설로 석유 화학 공급과잉 상황이 지속되고, 전기차 배터리의 수요도 글로벌 정책 기조의 변동성 심화로 올해는 급격한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및 ESG분야의 중장기 성장성은 여전히 유호하므로 당사는 보다 선제적이고 긴밀한 대응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기업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제24기 LG화학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신 부회장은 3대 신성장 동력으로 전지재료, 지속가능 사업,



LG화학 신학철 부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제24기 LG화학 정기 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LG화학

신약 등을 내세웠다. 그는 “전지재료 사업은 당사의 제품 및 기술 기반으로 고객에 차별화된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제공하고 핵심 역량을 쌓으며 경쟁 우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속가능 사업과 관련, 신 부회장은

“수처리 식물성 오일(HVO)사업 추진을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했고 화학적 재활용 초임계 기술의 실증을 위한 플랜트 건설을 마무리했다”라면서 “저탄소 기술인 DRM의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했다. 이어 “신약 사업은 시장에 대한 고도화된 통찰을 통해 기존 과제 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후기 단계의 함양 자산 확보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과 중심 연구·개발(R&D)로의 전환에도 나설 계획이다. 신 부회장은 “시장과 고객의 관점에 맞추어 기존 R&D 과제 재정비 및 신규 과제 발굴에 힘쓰겠다”면서 “효율적인 R&D 진행을 위해 내부 자원 최적화 뿐만 아니라 외부 협력 및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DX) 활동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금 흐름 개선에도 의지를 내비쳤

다. 그는 “모든 비용을 원점에서 면밀히 분석후 내부 효율성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우선 순위 조정과 최적의 자원 투입으로 재무 건전성을 지속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나프타분해시설(NCC) 2공장 매각, LG에너지솔루션 지분 매각 가능성에 대해 지속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주주총회에서 신 부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통과됐다. 신 부회장은 향후 2년간 LG화학 대표이사직과 사내이사직을 연임한다. 이외에도 ▲배당절차 개선 및 지점 등 설치에 관한 정관 변경 ▲권봉석(株)LG 부회장 기타비상무이사 재선임 ▲조화순·이현주 사외이사 재선임 등을 통과시켰다.

/차현정 기자 hyeon@



삼성전자 모델이 무안경 3D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3D'를 체험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 모니터 신제품 공개

무안경 3D 게이밍 모니터 등 선보

삼성전자가 국내 최초로 안경 없이 입체감을 즐길 수 있는 '오디세이 3D'를 포함한 2025년형 프리미엄 모니터 신제품을 24일 공개했다.

신제품은 ▲3D 신기술을 탑재한 '오디세이 3D' ▲27형 크기에 4K·240Hz를 지원하는 '오디세이 OLED G8' ▲전문가용 대화면 모니터 37형 '뷰피니티 S8' 등이다.

오디세이 3D는 국내 최초 무안경 3차원 경험을 제공하는 3D 게이밍 모니터다. 패널 전면 렌티큘러 렌즈를 적용하고, '인공지능(AI) 3D 영상 변환' 기술을 통해 일반 2D 영상을 실시간 3D로 전환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27형과 32형으로 출시된 '오디세이 OLED G8'은 4K 해상도와 240Hz 주사율을 지원하며, 'OLED 글래어 프리' 기술로 뛰어난 화질과 높은 명암비를 구현한다.

고해상도 모니터 '뷰피니티 S8·S7'는 세계 최초로 4K 화질, 16:9 화면비에 37형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업무 효율과 생산성을 높였다.

삼성전자는 오는 30일까지 사전 판매를 진행하며, 모델별 최대 15만 원 할인 쿠폰과 JBL 게이밍 헤드셋·스피커를 증정한다.

/이혜민 기자 hyem@

문혁수 “반도체 기관 경쟁력 강화... 2030년 매출 3조 달성”

(LG이노텍 대표)



연내 유리기관 생산장비 반입 예정

LG이노텍이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으로 꼽히는 유리기관 생산 장비를 올해 10월 반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리기관과 FC-BGA(플립칩-볼그리드 어레이)를 중심으로 고부가 반도체 기관 경쟁력을 강화해 2030년까지 연매출 3조원 이상을 달성



하겠다는 목표다. 문혁수 LG이노텍 대표(사진)는 24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진행된 주주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카메라 모듈에서 ▲반도체 ▲모빌리티 ▲로봇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LG이노텍은 신사업인 FC-B

GA와 차량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모듈 사업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표는 “글로벌 빅테크 향 FC-BGA 두 곳은 이미 수주해 구미 4공장에서 양산 중이며, 또 다른 빅테크 한 곳은 새로 수주해 내년부터 양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AI·서버용 등 하이엔드 시장에 단계적으로 진입해 FC-BGA 사업을 2030년까지 조 단위 규모로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장 부품 사업인 차량용 센싱 등 자율주행 핵심 부품 사업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리스크에 관련해 여러 생산지를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이노텍의 차량용 부품을 생산하는 멕시코 신규 공장은 7월 완공해 10월부터 본격 양산 예정이다.

한편 LG이노텍은 이번 주총에서는 통상 분야 전문가인 김정희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등을 사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영입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